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 지 은      김 혜 연      김 혜 원      송 인 한<sup>†</sup>

연세대학교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는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한 전국 규모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 중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데이터(N=482)를 분석하여,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관련 요인으로 상담 지원 업무를 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 관련 요인으로는, 세미나·스터디 등의 교육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던 반면, 사례회의·수퍼비전은 낮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서비스 및 사례중심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를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폭력, 종사자,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상담, 직무스트레스, 수퍼비전, 교육훈련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과제번호: HM14C2595),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사업(연세대학교, 신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창의 융합 사회복지 인재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up>†</sup> 교신저자 :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보건복지연구실,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217, E-mail : isong@yonsei.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6)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1,063건으로 인구 10만명 당 60.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29.1건에 비해 107.2%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건수 역시 2009년 67,221건에서 2015년 98,72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15). 반면, 성폭력 지원 분야 종사자 수는 2009년 1,476명에서 2015년 1,169명으로 감소하여(여성가족부, 2015), 지원 분야 종사자의 부담은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해바라기센터<sup>1)</sup>,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관련 기관은 의료, 법률, 간호, 상담, 수사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전문화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연구와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강은영, 채종민, 홍해숙, 2012; 이미정, 윤덕경, 변화순, 2011; 송인한 등, 2016). 그러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접근은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으며(변혜정 등, 2005; 김영택, 김동식, 김인순, 차지연, 2012),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성폭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원 종사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외상적 사건임에도, 그들이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아동보호 기관(고영빈, 2008; 박지영, 2008), 여성폭력상담소(정여주, 2011; 2012)와 같이 특정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박윤미, 윤혜미, 2011; 임정숙, 2014; 이형렬, 송경민, 2010), 상담자(김보경, 2011; 권혜수, 2011; 권혜수, 김소라, 2006; 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이미혜, 성승연, 2014) 등과 같이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심각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영빈, 2008; 박지영, 2008; 이미혜, 성승연, 2014; 정여주, 2011; Baird & Jenkins, 2003; Kassam-Adams, 1995; Luginis, 2000; Steed & Bicknell, 200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란 의미있는 타인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개인 차원의 심리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Figley, 1995).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는 성적인 외상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하는 외상을 접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박지영, 2015). 이영선 등(2012)은 성폭력분야 종사자와 유사한 업무 특성을 갖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와 119 소방서 응급구조사, 사상사고 경험이 있는 지하철 승무원 총 734명을 대상으로 대리 외상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 외상 수준이 기존에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직종으로 알려진 응급구조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혜수와 김소라(2006)는 성폭력 상담자 11명을 대상으로

1)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을 통해 2017년 현재 전국 37개소가 센터 특성에 따라 위기지원형, 아동청소년형,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www.womanchild.or.kr](http://www.womanchild.or.kr)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성폭력 상담자들은 지속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유사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경험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로서 자괴감과 회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상담자들은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담자와 거리두기를 하기도 하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내담자와 동일시를 하며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경험은 대인관계 영역의 축소와 단절을 가져오거나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에 예민해지는 결과를 낳으며, 인지적으로 인간 존재의 공격성에 대한 회의, 남성에 대한 적대감, 여성의 취약성, 사회 정의에 대한 혼란 등을 경험하였다. 이렇듯 외상 피해자의 사례에 노출되는 종사자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분노와 고통 등의 정서적 경험(권혜수, 김소라, 2006; Campbell, 2002)으로부터 신념과 신뢰, 안전감, 친밀감 등의 기본적 정체성에까지 폭넓은 범위의 영향을 받는다(Steed & Bicknell, 2001; Rich, 1997). 이러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영향은 전문가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까지 부정적인 파급력을 끼치며(Campbell, 2002; Figley, 2002; Pearlman & Saakine, 1995), 과각성, 무망감, 회피, 분노와 냉소주의, 불면증, 두려움, 탈진, 신체적 질병, 죄책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Van Dernoot Lipsky, 2009). 지속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부정할 경우에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고통이 누적되어 심리 정서적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Brady et al., 1999).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과 신체화 증상,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정적 소진이 동반

되며 원조대상인 클라이언트를 피하거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저하나 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명신 등, 2016; 임정숙, 2014; Stamm, 1997; Maslach et al., 2001).

이같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들은 성폭력 분야 종사자들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이전 외상 경험 등의 개인적 요인과 상담 경력, 직무스트레스, 업무 특성 등의 직무 관련 요인, 수퍼비전이나 교육 관련 요인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권혜수, 김소라, 2006; 권혜수, 2011; 김보경, 2011; 정여주, 2011; Sommer, & Cox, 2006; Stephanie, Rae, 2003). 그러나, 성폭력분야 종사자들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며, 교육이나 조직의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개입 가능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하다(박지영, 2011; Collins & Long, 2003; Pearlman & Mac Ian, 1995).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다양화·전문화 됨에 따라 기존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상담지원을 비롯하여 의료지원, 심리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의료, 간호, 상담, 수사, 법률 등 다양한 전문 직종들을 포괄하는 성폭력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성폭력 분야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인 분야로, 다양한 기관의 유형과 전공, 전문 직종을 포괄하여 종사자 전체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자료를 분석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인구사회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 외상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외상(trauma)이란 사망, 사고, 상실, 전쟁, 테러, 가정폭력, 성학대, 성폭력, 아동학대, 자연재해 등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박지영, 2011; Roy et al., 2011). 외상은 개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고통을 비롯한 급성불안, 슬픔, 공포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Bell, 1995).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비단 직접적으로 외상 충격 사건을 경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을 둔 가족과 친구들도 간접적으로 외상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외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확인하고 감정이입을 유지하게 되는 등 정서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피로감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과 무력감 등이 일상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박지영, 2011).

McCann과 Pearlman(1990), Figley(1995)는 이를 각각 대리 외상화(vicarious traumatization: VT)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STS)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Figley(1995)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외상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피로움으로 정의하고, 침습(intrusion), 회피(avoidance), 과도한 각성(hyperarousal)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장애(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STSD)에 해당된다고 보았다(Figley, 1995).

####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다양한 원조실천영역 중에서도 성폭력은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Baird & Jenkins, 2003; 박지영, 2015 재인용; 99). 이영선 등(2012)은 성폭력 분야와 유사한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분야 종사자의 대리 외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204명)의 대리 외상 수준이 사상 사고를 자주 목격하고 수습하는 등 사상사고 경험이 있는 지하철 승무원(240명) 보다는 낮지만, 외상 대상자를 직접 목격하고 구조하는 응급구조원(290명) 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는 성적인 외상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실제적이고 심리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박지영, 2015),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분노와 침체의 감정을 지켜보고 섬세하게 다루는 등의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권혜수, 김소라, 2006). 그들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것을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그대로 경험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고통, 정체감의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권혜수, 김소라, 2006; Campbell, 2002). 또한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과 신뢰, 안전, 통제, 자존감, 친밀감 등의 핵심 신념이 흔들리게 되며(Steed & Bicknell, 2001; Steed & Dowling, 1998; Rich, 1997), 정서가 메마르고 피곤해지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Capbell, 2002; Figley, 2002; Pearlman & Saakvitne, 1995).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종사자 개인의 심리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Figley, 1995; McCann & Pearlman, 1990).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특성과 직무 관련, 교육 관련 변인이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첫 번째,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연령과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수입 등이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영빈, 2008; Baird & Jenkins, 2003; Steed & Bicknell, 2001),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윤미, 윤혜미, 2011; 박지영, 2008; Canfield, 2005). 연령에 있어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높은 연령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으나(Baird & Jenkins, 2003; Creamer & Liddle, 2005; Steed & Bicknell, 2001), 국내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거나(김민애, 2002), 아무런 관련이 없기도 했다(고영빈, 2008; 박지영, 2008). 낮은 학력 또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는데(Baird & Jenkins, 2003),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망을 잘 활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보경, 2011).

두 번째, 직무 관련 요인이다. 경력, 직무스트레스, 업무 특성 등이 있으며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김보경, 2011 재인용; 20). 경력은 적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ugris, 2000). 직무스트레스는 종사자가 담당하는 사례 수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국외연구에서는 사례 수가 많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Kassam-Adams, 1995), 국내 연구에서는 사례 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으며 업무에 대한 과중함을 느끼는 정도가 더 유의한 변인으로 강조되었다(박지영, 2008; 정여주, 2011). 업무 특성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권혜수와 김소라(2006)는 성폭력 상담자를 업무 특성에 따라 전화상담자와 법률의료지원자, 면접상담자 집단으로 나누어 대리 외상을 비교하였는데, 면접상담자보다 전화상담자와 법률의료지원자가 더 많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접상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치유되

는 과정을 관찰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기회가 많은 반면에 전화상담자와 법률의료지원자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권해수, 김소라, 2006).

세 번째, 교육관련 변인으로 수퍼비전과 교육을 들 수 있다. 수퍼비전은 기존의 연구에서 대리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이미혜, 성승연, 2014). 국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수퍼비전과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Pearlman & MacIain, 1995), 초보 상담자가 수퍼비전을 받지 않으면 대리외상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ommer & Cox, 2006; Rich, 1997). 또한 외상과 관련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폭력 피해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영, 2008; Collins & Long, 2003).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변인을 측정하는 연구는 드물다(권해수, 2011; 신혜섭, 2010).

이러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직무 관련·교육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

업의 지원을 받은 차의과학대학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연세대학교 정신보건·보건복지연구소의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2015)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리스트에 따라, 총 200개 기관(해바라기센터 34개, 성폭력상담소 등 166개) 종사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유선 및 이메일로 연구 참여에 의사를 표현한 163개 기관에 연구동의서 및 설문지 8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종사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뒤 회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84부였으며, 응답이 미흡한 2부를 제외한 48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 승인 하에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행 연구들(권해수, 2011; 박윤민, 윤혜미, 2011; 박지영, 2008; 임정숙, 2014; Sommer & Cox, 2006)을 바탕으로, 인구사회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인구사회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수입수준, 결혼상태, 최종전공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연구참여자가 보고한 값을 사용

하였으며, 성별은 여성, 남성으로 이분화 하였다. 교육수준은 연구참여자가 보고한 최종학력을 응답 비율에 따라 '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분화 하였다. 월수입수준은 10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단위로 500만원 이상까지 6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회귀분석에는 1~6으로 연속 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이혼/사별' 집단으로 이분화 하였다. 최종 전공은 연구참여자가 보고한 전공을 비율에 따라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학'으로, 그 외 상담학/교육학/아동가족학, 심리학, 간호학, 법학/경찰학 등은 '사회복지학 외'로 이분화 하였다.

#### 직무 관련 요인

기존 연구를 통해 직무 관련 요인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요인으로 발견됨에 따라 직무 관련 요인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경력 기간, 주요 업무,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였다. 경력 기간은 현재 소속기관 경력을 월 단위로 응답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해바라기센터의 직군 분류 및 성폭력 관련 기관의 업무 내용에 따라, 상담지원, 수사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보호·사회복지 지원, 교육 및 연구,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응답비율에 따라 '상담지원'에 '1', '상담지원 외'에 '0'의 값을 부여하여 이분화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4)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24문항으로,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7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민과 김순례(2010)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2이었으며, 본 연구는 .84이었다.

#### 교육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교육을 '세미나/스터디'와 '사례회의/수퍼비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세미나/스터디', '사례회의/수퍼비전'은 연구참여자가 최근 1년간 참가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시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여 수치화 하였다.

####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K-ST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괴로움(Figley, 1995)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척도는 Bride 등(2004)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STSS)의 17문항을 구성타당화 연구를 통해 13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로, 침습(intrusion) 영역 9문항과 회피(avoidance) 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지영(2011)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는 .90이었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0.0 통계 패키지(IBM Corp., 2012)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최종전공, 주요업무)에 따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경력기간, 직무스트레스, 세미나/스터디 참가, 사례회의/수퍼비전 참가)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구사회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의 각 변인들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97.9%는 여성이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

구분	변 수	연구 참여자 (n=482)	
성별	남성	10 (2.1%)	
	여성	472 (97.9%)	
연령(세)	40.65±9.03 (최소 22~최대 68)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이하	289 (60.0%)	
	대학원 졸업 이상	184 (38.2%)	
	무응답	9 (1.9%)	
인구사회적 요인	월수입수준	100만원 미만	12 (2.5%)
		100만원~200만원 미만	233 (48.3%)
		200만원~300만원 미만	205 (42.5%)
		300만원~400만원 미만	27 (5.6%)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4%)
		500만원 이상	1 (0.2)
		무응답	2 (0.4%)
결혼상태	미혼/이혼/사별	141 (29.3%)	
	기혼	340 (70.5%)	
	무응답	1 (0.2%)	
최종전공	사회복지학	196 (40.7%)	
	상담학/교육학/아동가족학	101 (16.8%)	
	심리학	46 (9.5%)	
	간호학	43 (8.9%)	
	법학/경찰학	27 (5.6%)	
	기타(의학, 종교학 등)	88 (18.2%)	
	무응답	1 (0.2%)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 (계속)

구분	변수	연구 참여자 (n=482)	
	경력 기간(월)	42.64±43.98 (1~264)	
직무 관련 요인	주요업무	상담지원	302 (62.7%)
		수사지원	52 (10.8%)
		의료지원	50 (10.4%)
		심리지원	37 (7.7%)
		기타(법률지원, 보호·사회복지지원, 교육 및 연구, 기타 등)	40 (8.3%)
		무응답	1 (0.2%)
		직무스트레스 <sup>1)</sup>	55.64±7.26 (34~85)
교육 관련 요인	세미나/스터디 참가(시간)	25.18±26.90 (1~140)	
	사례회의/수퍼비전 참가(시간)	23.78±34.81 (1~300)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sup>2)</sup>		30.36±8.90 (13~56)	

주) 단위: 범주형 변수 [빈도(%)], 연속형 변수 [평균±표준편차(최저~최고)].

1)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점수, 2)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 (K-STSS) 점수.

였으며, 평균 연령은 40.65세(표준편차 9.03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60%, 대학원 졸업 이상 38.2%였고, 월수입은 연구 참여자의 90.8%가 100만원~300만원 미만 수준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0.5%로 비중이 높았으며, 최종전공은 사회복지학이 40.7%로 다른 전공 보다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평균 경력기간은 42.64개월(표준편차 43.98개월)로 약 3년 반 정도로 조사되었다. 주요 업무는 상담지원이 62.7%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수사지원과 의료지원이 각 10.8%, 10.4%로 비슷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점수의 평균 55.64점(표준편차 7.26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세미나 및 스터디 참가 시간은 평균 25.18시간(표준편차 26.90시간),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참가 시간은 평균 23.78시간(표준편차 34.81시간)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은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점수 평균 30.36점(표준편차 8.90점)이었다.

####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범주형 변수들 간의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 특성에 따른 범주형 변수들 간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은 인구사회적 요인, 즉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최종전공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직무 관련 요인인 주요 업무에 따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주요 업무가 상담지원인 경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30.42점(표준편차 9.11점)으로 상담지원이 아닌 경우 30.28점(표준편차 8.57점)과 유사한 정도로 분석되었다.

표 2.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범주형 변수들 간의 차이 분석

변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r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6.20	6.97	-1.497 (0.135)	
	여성	30.45	8.92		
인구 사회적 요인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이하	30.50	8.60	-0.497 (0.619)
	대학원 졸업 이상	30.08	9.41		
결혼상태	미혼/이혼/사별	30.62	8.81	-0.404 (0.686)	
	기혼	30.26	8.96		
최종전공	사회복지학	29.51	8.72	-1.702 (0.089)	
	사회복지학 외	30.92	8.89		
직무 관련 요인	주요 업무	상담지원	30.42	9.11	0.163 (0.871)
		상담지원 외	30.28	8.57	

\* p<0.05, \*\* p<0.01, \*\*\* p<0.00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연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연속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

과 같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r=-0.094, p=0.041), 월수입 수준이 높을수록(r=0.112, p=0.015),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r=0.345, p=0.000)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력 기

표 3.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연속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1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0.094* (0.041)	1				
	월수입수준	0.112* (0.015)	-0.056 (0.223)	1			
직무 관련 요인	경력 기간	-0.003 (0.956)	0.386*** (0.000)	0.040 (0.382)	1		
	직무스트레스	0.345*** (0.000)	-0.138** (0.003)	0.064 (0.170)	-0.091 (0.052)	1	
교육 관련 요인	세미나/스터디 참가	0.026 (0.685)	0.000 (0.999)	-0.233*** (0.000)	0.023 (0.711)	0.038 (0.562)	1
	사례회의/수퍼비전 참가	-0.063 (0.296)	-0.084 (0.160)	-0.040 (0.499)	-0.029 (0.632)	0.104 (0.090)	0.359*** (0.000)

\* p<0.05, \*\* p<0.01, \*\*\* p<0.001.

간, 세미나 및 스터디 참가 시간,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참가 시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모형의 설명력은 21.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중다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적 요인은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 관련 요인으로서, 주요 업무로 상담지

원을 하는 경우( $B=3.605, p=0.028$ )와 높은 직무스트레스( $B=0.504, p=0.000$ )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관련 요인으로서 세미나 및 스터디 참가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참가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0.037, p=0.048$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의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

표 4.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영향 요인 회귀분석

	변수	B	t	p
인구사회적 요인	성별(남성)	-2.539	-0.641	0.522
	연령	-0.165	-1.886	0.061
	교육수준(대학원 졸업 이상)	.586	0.446	0.656
	월수입수준	.287	0.267	0.790
	결혼상태(기혼)	2.455	1.471	0.143
직무 관련 요인	최종전공(사회복지학)	-2.275	-1.683	0.094
	경력 기간	0.005	0.335	0.738
	주요 업무(상담지원)	3.605	2.212	0.028*
	직무스트레스	0.504	5.571	0.000***
교육 관련 요인	세미나/스터디 참가	-0.003	-0.118	0.906
	사례회의/수퍼비전 참가	-0.037	-1.987	0.048*
Constant = 6.581 / F = 4.349*** / R <sup>2</sup> = 0.212 / Adj R <sup>2</sup> = 0.163				

\*  $p < 0.05$ , \*\*  $p < 0.01$ , \*\*\*  $p < 0.001$

주) 기준집단 : 성별(여성), 교육 수준(대학교 졸업 이하), 결혼 상태(미혼/이혼/사별), 최종 전공(사회복지학 외), 주요 업무(상담지원 외).

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리스트에 근거하여 총 200개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여성폭력상담소와 같은 특정 기관(고영빈, 2008; 박지영, 2008; 정여주, 2011; 2012)이나 사회복지사 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가 등 일부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권혜수, 2011; 김보경, 2011; 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박윤미, 윤혜미, 2011; 이미혜, 성승연, 2014; 임정숙, 2014; 이형렬, 송경민, 2010), 본 연구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다양한 전공, 전문 직종들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료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첫 번째, 범주형 변수들과의 차이분석 결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은 성별, 최종전공,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요 업무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여성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의 평균점수(30.5점)는 남성의 평균점수(26.2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의 보고들(고영빈, 2008; Baird & Jenkins, 2003; Steed & Bicknell, 2001)과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존에 이차적 외상의 위험요소로 언급된 낮은 학력(Baird & Jenkins, 2003)과 미혼(박윤미, 윤혜미, 2011; 박지영, 2008; Canfield, 2005)도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보다는 직무나 교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상관분석 결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은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월수입수준과 직무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였는데(Baird & Jenkins, 2003; Creamer & Liddle, 2005; Steed & Bicknell, 2001; 김민애, 2002; 고명빈, 2008; 박지영, 2008),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주로 사용하는 대처기술이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olkman et al., 1987). 다음으로 월수입수준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월수입수준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수준은 소속 기관의 특성이나 직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에서 수입 수준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추후 수입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제안된다. 직무스트레스는 상관분석과 함께 중다회귀분석에서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바, 네 번째 논의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주요 업무로서 상담지원이 상담지원 외 업무에 비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지원이 수사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다른 지원에 비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담지원 업무의 환경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위협적

이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이미혜, 성승연, 2014).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는 시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담지원 업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전체의 과정을 포괄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상담지원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외상을 다른 지원업무에 비해 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종사자의 비인간화가 높아지며(이형렬, 송경민, 2010), 정서적인 탈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phanie & Rae, 2003; 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이명신, 2016 재인용). 이러한 정서적 소진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누구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상담지원을 하는 종사자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화상담자와 법률·의료지원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이 면접상담자 보다 높게 나타난 권혜수(2011)의 기존 연구와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데 반해, 본 연구는 다학제의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여러 직군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집단을 전화상담자, 면접상담자, 법률·의

료지원자로 업무내용(상담/법률·의료지원)과 업무형태(전화/면접)를 혼합한 형태로 집단을 분류한데 비해 본 연구는 업무내용(상담지원 Vs. 그 외 수사·의료·심리지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가 일원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분석 상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라이언트와의 심리적 접촉이 강조되는 분야 종사자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측면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Seibert, 2004)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절대적인 업무량과 종사자가 업무에 대해 지각하는 부담이 클수록 우울경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Kassam-Adams, 1999),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교육 관련 요인으로 세미나 및 스터디 참가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에 참가하는 것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슈퍼비전이 종사자의 스트레스(Pearlman & Mac Ian, 1995)와 대리외상(Sommer & Cox, 2006; Rich, 1997)과 관련이 있으며, 외상 관련 훈련이나 교육이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하겠다(Collins & Long, 2003; 박지영, 2008). 세미나나 스터디 활동은 일반적으로 강의를 중심으로 전문 지

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이슈나 주제 중심의 단방향적인 교육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사례회의나 슈퍼비전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종사자의 해석과 감정적 반응이 교육 '과정' 중에 안전하게 표현되고, 주변의 동료나 슈퍼바이저로부터 개별적인 전문적 조언과 심리정서적 지지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인 교육의 형태라 할 수 있다(김민예숙, 강문순, 2004).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의 양방향성은 종사자 개인이 경험하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미나·스터디 참가와 사례회의·슈퍼비전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미혜, 성승연, 2014). 본 연구는 개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은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고, 종사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역량 강화 교육 중에서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

는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McCann & Pearlman, 1990). 현재 성폭력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주로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에서 입문교육, 보수교육(직군별 교육, 사례슈퍼비전 등), 소진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기관에서도 사례연구나 슈퍼비전을 시행하고 있다(송인한 등, 2016). 중앙지원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 중 사례연구와 슈퍼비전은 전체의 27.2%, 개별 민간기관은 전체의 29.2% 비중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슈퍼비전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한다. 성폭력 분야에서 슈퍼비전을 제공할 전문가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민예숙, 강문순, 2004; 권혜수, 2011; 송인한 등, 2016). 슈퍼바이저는 다양한 성폭력 사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동시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정서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성폭력분야 전문가들이 신규 슈퍼바이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의 슈퍼바이저가 전문적인 슈퍼비전의 역량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임상 업무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슈퍼비전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장받아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 제한점이 추후 연

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이 낮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나,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횡단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관련 요인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기존 관련 연구에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인심리적 요인과 조직요인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박윤미, 윤희미, 2011; 윤명숙, 박은아, 2012) 등 보호적 성격의 심리적 특성을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성폭력 지원기관의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연구로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과, 기존에 알려진 개인 및 직무 관련 변수와 동시에 제도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보호요인으로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과 같은 사례중심의 교육이 성폭력분야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지원 분야 종사자의 수는 감소하여(여성가족부, 2015) 업무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성폭력 분야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종사자 개인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은영, 채종민, 홍해숙 (201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영빈 (2008).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2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민, 김순례 (2010). 산업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테즘.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9(2).
-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3), 495-513.
- 권해수 (2011). 성폭력 상담사의 대리외상 관련 변인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2(1), 415-430.
- 김민예숙, 강문순 (2004).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25.
- 김민애 (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의 대처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보경 (2011).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택, 김동식, 김인순, 차지영 (2012). "성폭력 피해자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개인 및 조직 특성과 대리외상이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원들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4), 265-293.
- 박윤미, 윤혜미 (2011).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 업무부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289-322.
- 박지영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외상 관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관련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27-344.
- 박지영 (2011).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63(4), 33-57.
- 박지영 (2015). 외상피해원조실무자의 업무스트레스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실무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2, 1(2015).
- 변혜정, 조중신, 김지혜, 권수현, 정유석, 김혜정, 현혜순, 정희진, 정유희, 김애라, 권정혜, 박소라 (2005).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송인한, 김지은, 신수민, 이상혁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6(9), 349-361.
- 신혜섭 (2010). 가정폭력상담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직무요인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45-61.
- 여성가족부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윤명숙, 박은아 (2012).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음주행위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18, 109-130.
- 이명신, 양난미, 안수영, 김보령 (2016). 성폭력상담원의 소진 결정 요인: 업무과중, 공감피로, 피해자중심서비스와 이차피해태도. *비판사회정책*, 50, 284-333.
- 이미정, 윤덕경, 변화순 (2011).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혜, 성승연 (2014).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09-137.
- 이영선, 이소래, 주성아, 고영빈, 김예진, 한인영 (2012). 응급구조원, 지하철 승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 외상과 외상 후 성장. *사회복지연구*, 43(1), 249-273.
- 이형렬, 송경민 (2010). 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소진(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I 연구노총*, 12(2), 171-200.
- 임정숙 (201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1), 31-60.
- 장세진, 강동목, 강명근, 고상백, 김성아, 김수영, 김정연, 김정원, 김정일, 김형수, 노상철, 박재범, 손미아, 우종민, 이철갑 (2004).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2차년도)*. 서울: 한국산업안전공단.
- 정여주 (2011).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클라이언트 폭력이 이차 외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여주 (20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소진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

- 사업, 19, 159-191.
-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http://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list&pb1MatlDivCd=01>.
- Barid, K., & Kracen, A. C. (2006). Vicarious traumatization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 research synthesi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9*(2), 181-188.
- Baird, Jenkins.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18*(1), 71-86.
- Bell, J. L. (1995). Traumatic Event Debriefing: Service delivery design and the role of social work. *Social Work, 40*(1), 36-43.
- Brady, J. L., Guy, J. D., Poelstra, P. L., & Brokaw, B. F.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spirituality, and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 survivors: A national survey of women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4), 386.
- Bride, B. E., Robinson, M. M., Yegidis, B., & Figley, C. R.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1), 27-35.
- Canfield, J. (2005). Secondary traumatization, burnout,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75*(2), 81-101.
- Campbell, R. (2002). *Emotionally involved: The impact of researching rape*. New York: Routledge.
- Collins, Sean, & Ann Long. (2003). Working with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rauma: consequences for mental health care worker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4), 417-424.
- Creamer, T. R., & Liddle, B. J. (2005).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disaster mental health workers responding to the september 11 attack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1), 89-96.
- Figley, C. R. (1995). *Compassion fatigue: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sts of caring*. In B. H. Stamm(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 self - 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 Baltimore, MD: Sidran Press.
- Figley, C. R. (2002). Compassion fatigue and the psychotherapist's chronic lack of self ca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1433-1441.
- Folkman, S., Lazarus, R. S., Pimley, S., & Novacek, J. (1987). Age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processes. *Psychology and aging, 2*(2), 171-184.
- Kassam-Adams, Nancy Stamm, B. Hudnall (Ed). (1995). *The risks of treating sexual trauma: Stress and secondary trauma* in psychotherapists.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 Sidran Press, 37-48.
- Lugris, V. (2000). Vicarious traumatization in therapists: Contribution factors, PTSD symptomatology, and cognitive distorti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 the science and engineering, 61*, 5572.
- Maslach, Christina, Wilmar B. Schaufeli, & Michael P. Leiter.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 McCann, I,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 131-149.
- Pearlman, L. A. & Saakvitne, K. W. (1995). *Trauma and the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incest survivors, New York: Norton.
- Pearlman, L. A., & Mac Ian, P. S. (1995). Vicarious traumatiza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rauma work on trauma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Research and Practice*, 26(6), 558-565.
- Roy, Alec, Vladimir Carli, & Marco Sarchiapone. (2011). Resilience mitigates the suicide risk associated with childhood traum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3(3), 591-594.
- Rich, K, D.(1997). *Vicarious traumatization: A preliminary study*. In S. B. Edmunds(Ed.). Impact : working with sexual abuser, 75-88.
- Siebert, D. C. (2004). Depression in North Carolina social worker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28(1): 30-40.
- Sommer, C., & Cox, J. (2006). Sexual violence counselors' reflections on supervision: Using stories to mitigate vicarious traumatization. *Journal of Poetry Therapy*, 19(1), 3-16.
- Stamm, B. H. (1997). Work-relat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PTSD Research Quarterly*, 8(2), 1-8.
- Steed, L. G., & Bicknell, J. (2001). Trauma and the therapist: The experience of therapists working with the perpetrators of sexual abus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1(5), 2001-1.
- Steed, I. G., & Dowing, R. (1998). A Phenomenological study of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st psychologists and professional counsellors working in the field of sexual abuse/assault. *The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2, [online Journal].
- Stephanie, B & Rae, J. S. (2003). Vi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18(1), 71-86.
- Van Dernoot Lipsky, L. (2009). *Trauma stewardship: An everyday guide to caring for self while caring for other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
- Wrenn, L.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rauma exposure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for social work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6, 1963.
- 1차원고접수 : 2017. 7. 2.  
심사통과접수 : 2017. 12. 1.  
최종원고접수 : 2017. 12. 3.

##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Practitioners Supporting Sexual Assault Victims

Kim, Ji Eun      Kim, Hye Yeon      Kim, Hye Won      Song, In Han

Yonsei University

As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victims rapidly increases in Korea, practitioners working for the victims are more exposed to victims' trauma. As a result, practitioners are reported to suffer from secondary traumatic stress. However, there is a lack of nationwide representative study on the sexual violence support, and also there is little systematic study about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ir secondary traumatic stress. By analyzing the data of employee survey data of "Preliminary study on the expert training program of individualized support of treatment & recovery for sexual violence victims"(N=482) conducted for all the sexual assault support agencies nationwide, this exploratory study investigated socio-demographic, work-related, and training-related factors affec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experienced by the practitioners.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 of job stres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those providing counseling service as for the job-related factor. As for training-related factors, while there was no statistical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training such as seminars and lectures, case studies and supervision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rvices for reducing job stress and case-centered training are needed for counseling practitioners. Based on these findings, institutional approaches are suggested for protecting practitioners working for sexual assault victims from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for reduc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Key words* : Sexual Assault, Practitioners, Secondary Traumatic stress, Counseling, Job Stress, Supervision, Educational Training